

## 근세의 다타라 매뉴얼

『철산비서』(鐵山祕書, 다타라 제철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기록한 서적)는 제철소를 경영했던 시모하라 시게나카(1738~1821)가 1784년에 저술한 총 8권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문외불출했던 제철 기술 등 다타라 제철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한 철저적인 매뉴얼입니다.

예를 들어, 4권(현재 이곳에 전시 중)을 살펴보면, 다타라 용광로를 만드는 방법이나 다타라 용광로가 있던 다카도노(작업장)의 해설과 스케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산비서(鐵山祕書)』가 쓰일 무렵, 다타라 용광로는 야외가 아닌 건물 내부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광로가 대형화되면서 제련에 수일이 소요되자, 비바람으로부터 용광로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매뉴얼은 제철 기술뿐 아니라 제철에 종사하는 사람들 각자의 행동 규칙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권에는 제철소 경영자는 음주나 도박을 삼가고 본인이 직접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유랑 극단이 마을에 들어와 노동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비슷한 이유에서 여성이 다카도노의 작업장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무라게(작업장)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